

[함께 뛰는 상하수도인]



청정 철원의 전통을 지키는 역사와 미래의 현장

강원도 철원군 환경수도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태백산맥과 북한강의 지류인 금성천, 남대천과 맞닿아 있는 곳 철원. 시원한 공기와 비옥한 땅, 무엇보다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 천혜의 자연으로 손꼽히는 청정 철원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철원군 환경수도과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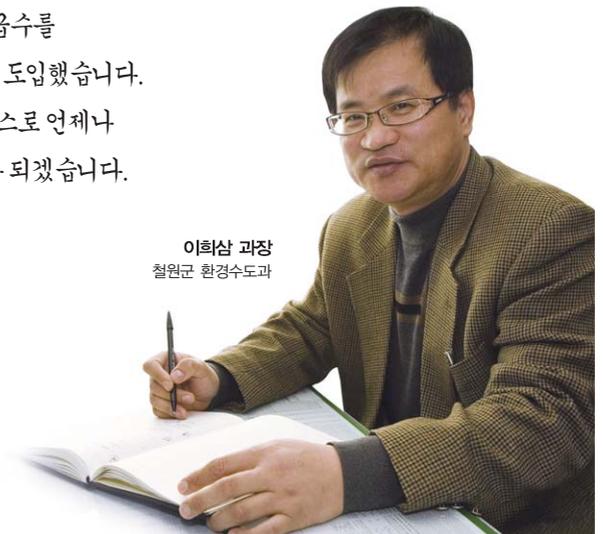
최고의 물, 최고의 만족

현재 철원의 역사에 가장 근접한 것은 삼국시대. 철원군은 고구려 때 '모을동비(毛乙冬非)'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모을'은 '털'을 한자로 적은 것이며, 이후 '철'로 변화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통일신라를 넘어 후삼국시대에는 궁예가 송악을 근거로 후고구려를 건국한 후, 905년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1945년 이후에는 북한에 속해 있다가 1953년 수복되면서, 1954년 6월부터 민간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경기도 포천 건너편으로 서울에서 불과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이지만 역사의 질곡과 함께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철원. 하지만 철원의 역사는 이처럼 무구하며 잔잔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견주어볼 때 그 산줄기와 꼭 닮았다.

“1996년에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과와 환경과를 통합하면서 환경수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수도 관리계와 하수도 관리계, 그리고 수도행정 분야로 나뉘어 상하수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수도과 책임자로 발령받은 이희삼 과장은 철원의 모든 도시건설 과정을 주관했을 만큼 오랜 기간 철원군의 건설 분야를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철원군 상하수도 업무의 현대화와 전산화를 이끌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희삼 과장이 선봉에 선 철원군 환경수도과는 '최고의 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정호조 철원군수의 말을 되새기며 늘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저희 철원군은 깨끗하고 맛도 좋은 천혜의 1급수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청정의 물과 첨단 시설이 접목된 수도 서비스로 언제나
주민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환경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이희삼 과장
철원군 환경수도과





상수도에 이어 하수관거사업에 박차를

지난해 철원군 환경수도과의 가장 두드러진 업무 성과라고 한다면 단연 마을상수도 관리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작년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철원군이 당당히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일해 1위를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9억원의 국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군 재정에 아직도 개량해야 할 마을상수도 시설들이 많고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예정인데, 국비는 물론 도비 보조금까지 얻게 되었으니 2008년 사업 진행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국비를 지급받은 덕분에 2008년에 해야 할 일이 늘었지만 이 희삼 과장을 비롯한 환경수도과 직원들은 오히려 기쁘지만 하다. 현재 철원군의 급수 보급률은 79% 정도. 그러나 서면 자등리, 근남 육단리, 사곡리 등 1,82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급수 구역 확장이 완료되면 보급률이 88%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 더욱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완공 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총 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탄강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갈말상수도 취수원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맑고 풍부한 수도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1단계를 완료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적극 추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하기도 했다.

“2007년까지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왔고, 2008년부터는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증장기계획으로 분리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권태성 계장은 김화, 갈말과 더불어 6천톤 규모의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시작해 철원과 동송읍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정화처리 효율을 높여 하천 수질을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수도행정 선진화로 “철원의 상하수도 운영 목표이자 원주민 편의 도모

척은 바로 '통합'입니다. 한탄강을 기점으로 DMZ에 인접한 김화와 갈말, 동송 지역을 하나로 묶으면서

마을상수도 20개 지역까지 원격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희삼 과장이 환경수도과에 부임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지역 특성상 마을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환경수도과로서는 마을상수도 50개소, 약수터 13개소 등을 대상으로 일일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해 왔다. 2007년부터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해 더욱 철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모든 상수원을 무인시스템으로 원격 제어하는 한편 중앙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

“청정 철원의 물은 소독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맛도 일품입니다. 이러한 1급수의 위상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뛰어야죠.” 환경수도과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수도행정에도 변화를 주었다. 자동납부와 이메일 고지를 통한 요금할인 제도가 바로 그것이며, 수도요금의 검침과 과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원격자동검침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희삼 과장은 올해 환경수도과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지시하며 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 환경도 다변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희삼 과장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현업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이러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원들이 보다 높은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업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저부터 시작해 검침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철원군 환경수도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만큼은 철원군의 맑고 깨끗한 물처럼 투명하고 넉넉하다.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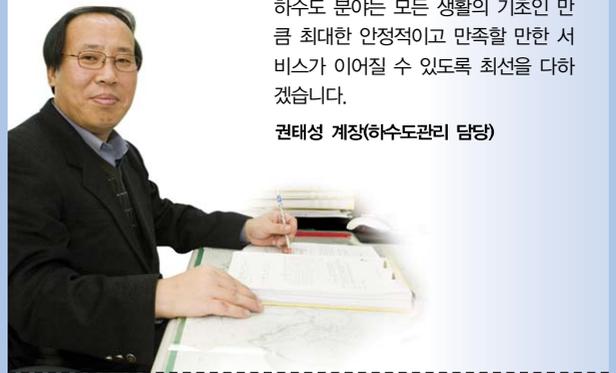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종 민원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정권 계장(상수도관리 담당)



하수도 분야는 모든 생활의 기초인 만큼 최대한 안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성 계장(하수도관리 담당)



사용납부 방법과 검침 및 요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걸 계장(수도행정 담당)

